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7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4.(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4. (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044-203-4086)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8. 7. 4(수)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1.1 ~ 6.30)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6월 30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마다 발표**되며,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18년 10월 초순 발표예정**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5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청신호 -

- 신고기준 157.5억 달러로 (+64.2%) 이미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넘어서 -

- 도착기준도 94.6억 달러로 (+76.4%) 안정적 증가세 -

Ⅰ. 종합

1 **(실적)**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4.2% 증가한 157.5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

* ① 기존 상반기 최대실적 : '16.上, 105.6억불, ② '17년 상반기 : 95.9억불

○ 도착기준도 전년동기대비 76.4% **증가한 94.6억 달러**를 기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 미·중간 무역갈등, 美 법인세인하, 한-미간 금리차 확대, 글로벌 M&A 위축 등

【 연도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불)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2018
상반기	신고	80.0	103.3	88.7	105.6	95.9	94.7	157.5
	도착	46.4	75.8	63.1	51.2	53.6	58.0	94.6
전체	신고	145.5	190.0	209.1	213.0	229.4	197.4	
	도착	98.8	121.7	165.5	107.7	134.5	125.7	

2 **(특징)** 이번 실적은 ▲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 달성", ▲ "한국 경제의 굳건한 경제기초(펀더멘탈) 재확인",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위한 합작투자 증대", ▲ "신산업 생태계 구축형 투자"의 가시화로 요약됨

①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 157.5억 달러**는(+64.2%)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이미 '17년 3분기 실적(135.9억 달러)을 추월해 **"4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에 청신호

- 특히, G사의 증액투자 이행규모(약36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달성함(G사의 투자규모 제외한 수치는 121.5억불, +26.7%, 전년동기비)

② **(견고한 한국경제 경제기초 확인)** 수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내구재 소비지출 증가, 반도체·석유화학 시장 활황 등 **한국경제의 튼튼한 투자환경**이 상반기 대한(對韓) **투자의 현실화**를 견인

* OECD는 한국이 '18년과 '19년 모두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18.6월)

③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합작투자 증대)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전·후방 연관산업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투자가 활발

* 자동차부품, 반도체웨이퍼, 정밀기계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투자가 꾸준

④ **(신산업 생태계 구축형 투자 가시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양질의 인력, 테스트베드 시장 등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

* IT보안플랫폼, 웹툰·웹소설, 모바일 게임, O2O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모델을 출시

3 **(평가)** 상반기 투자증가는 ▲ 미·중 간 **무역분쟁 격화**, ▲ 한·**미 간 금리차 확대**, **국제 인수합병(M&A) 감소** 등의 **어려운 투자여건**[1] 속에서 이룩한 성과로서, **고위급 투자유치활동(IR)**[2] 등의 적극적 투자유치활동도 큰 기여

1) ① 미·중간 관세부과 및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對美투자 제한조치, ② 미국(1.75~2.0%)과 한국(1.50%)간 기준금리 차이는 더욱 확대, ③'17년 글로벌 M&A 규모는 6,940억불로 전년대비 22%나 감소(UNCTAD)

2) Annual Investment Meeting **연계** IR(통상교섭본부장, UAE, 4월), **미국** IR(장관, 뉴욕, 4월), **일본** IR(무역투자실장, 도쿄, 5월), **중국** IR(장관, 베이징, 6월)

① **(지역별)** 미·**유럽연합·중·일** 등 전통적인 주요투자국은 물론 **중동·중화권** 등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든 지역이 증가 추세**

② **(업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 추세**

-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위한 **합작투자**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영향에 따른 **설비증설 투자**로 제조업은 **큰 폭**(+155.0%) **증가**
- **(서비스업)** 도·소매, 부동산, 금융 등 **3대 서비스 업종**의 투자규모의 유지,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콘텐츠분야** 투자 증가로 견조한(+25.3%) 증가세

* 일반·게임 SW개발 및 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영상·오디오 제작, 정보서비스업 등

③ **(유형별)** 그린필드형은 주력산업(자동차·반도체)과 서비스업(물류·부동산 등) 중심으로 증액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크게 증가했으며(+62.7%), 인수합병**(M&A) 형**은 상반기 **대형 기업간 거래(Deal) 성사**에 따라 큰 증가세(+71.2%)를 시현

Ⅱ. 세부동향

1. 국가별 특징

❶ EU는 전방산업의 수요증대로 GVC 참여투자 및 대형M&A 투자가 활발
❷ 미국은 4차산업혁명 연관 업종간 융·복합투자, 스타트업 육성투자가 특징
❸ 중국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로 서비스업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역대 최대실적 달성
❹ 일본은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전·후방산업 투자증가 및 투자분야 다변화

* 국가별로 투자금액 상위 3개 업종을 명시

1 유럽연합(EU)

◈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106.3% 증가한 45.7억 달러***을 기록(비중 29.0%), 도착기준은 **96.0% 증가**한 **33.3억불**을 기록

* ① **운송용 기계**(19.9억 달러, +2,025%), ② **도·소매**(6.6억 달러, +499%), ③ **전기·전자**(5.5억 달러, +290%)

① **(특징)** 전통적으로 강세인 화학공업·자동차부품 분야의 투자가 **지속되고***, 대형 인수합병(M&A) 성사에 따른 투자확대가 증가세를 견인

* 반도체소재, 산업용가스, 자동차 전장부품, 석유윤활물질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율주행분야 부품업에 대한 투자로 관련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기대

-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전기차·반도체** 등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해 중간재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짐

- **(대형 인수합병(M&A) 및 지분투자)** 도·소매업 및 식료품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의 인수합병(M&A) 투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증액 지분투자 등이 증가세에 기여

② **(업종)** 제조업은 **26.8억 달러**(+194.1%), 서비스업은 **18.5억 달러**(+47.6%)를 기록

- **(제조업) 운송용기계**(19.9억불, +2,025%), **전기·전자**(5.5억 달러, +290%) 중심으로 큰 증가세 시현

* 자동차부품(A사, 5.4억불), 완성차(B사, 13.9억불), 반도체웨이퍼(C사, 4억불) 등

- **(서비스업) 숙박·음식**(5.2억 달러, +26,360%) **도·소매**(6.6억 달러, +499%), **여가·스포츠·오락**(0.4억 달러, +301%)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

※ 유럽연합(EU)**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2차전지 소재)** 전기차, 스마트폰, AI기기 등 전방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시장에 중간재를 공급하기 위한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 **(온라인 쇼핑몰)** 세계최대의 화장품·뷰티 기업이 국내 의류 온라인쇼핑몰 지분을 인수한 투자로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중국시장 공략

2 미국

◈ 신고는 전년대비 **23.2%** 증가한 **30.1억 달러**를 기록(비중 19.1%), 도착은 **163.0%** 증가한 **17.1억 달러**를 기록

* ① **정보통신**(9.4억불, +2,204%), ② **부동산**(5.6억불, +98%), ③ **운송용기계**(4.8억불, △5.1%)

① **(특징)** 전자상거래, 클라우딩,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활발

* 세계최대의 자산운용사, 대체투자전문 인프라펀드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성공

-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IR) 효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세제개편·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투자가의 우려를 불식**하고 투자 조기 현실화를 위한 **고위급 투자유치 설명회(IR) 실시**(장관, 4월)

- **(업종간 융복합 투자)** '전자상거래+대형물류센터', '클라우드+인력양성센터', '바이오의약품+전자기기' 등 융복합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투자형태가 다수***

* 4차산업혁명에 따라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전통 투자모델을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투자가 **최근 미국발 FDI의 트렌드**를 주도

- **(스타트업 육성 투자)** 기술력은 있으나, 인지도와 자본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유망 신규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형 투자가 활발**

* 스타트업은 자본조달 뿐 아니라 투자가의 인적 네트워크, 현지유통망, 경영노하우를 활용

② **(업종)** 제조업은 전년대비 **25.8% 감소한 7.8억 달 러**을 기록, 서비스업은 **56.1%** 증가한 **21.7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기계·장비**(2.5억 불, +4,407%)는 증가세, **운송용기계**(4.8억 달러, △5.1%)는 감소

* 콜드체인장비(D사, 2.5억 달러), 완성차(E사, 4.7억 달러), 차부품(F사, 6.5백만 달러) 등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기조('18년, +1.2% 전망)가 일부 영향

- **(서비스업) 정보통신**(9.4억 달러, +2,204%), **부동산**(5.6억 달러, +98.0%), **금융·보험**(2.7억 달러, +51.9%), **도·소매**(2.5억 달러, +487%) 중심으로 증가세

※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전자상거래)**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 성장성과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한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증액투자

▲ **(콜드체인 장비)** 미국의 세계적인 대체투자* 인프라 펀드에서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국내의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에 증액투자

* 대체투자 : 전통적인 주식·채권 外 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선박 등 실물투자

3 중국

◈ 신고기준 **360%** 증가한 **22.0억 달러**(비중 14.0%), 도착기준 **558.8%** 증가한 **7.2억 달러**

* ① **부동산**(8.0억불, +2,067%), ② **금융·보험**(5.8억불, +36,278%), ③ **전기·전자**(1.9억불, +1,135%)

① **(특징)** 양국 간 경제교류 회복세, 한국 최고급 소비재 투자 등에 힘입어 **중국의 대한(對韓)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 달성** (기존 20.5억 달러, '16년 전체)

* '17년말 양국간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분위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중국의 對韓투자 수요가 고위급 IR(장관, 6월)등을 통해 현실화

- **(투자협력분야 다변화)** 그간 부동산·지역개발 중심의 대한(對韓)투자가 반도체·신재생에너지·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협력범위가 확장됨**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및 "해외투자 지침" 등에서 선진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FTA를 맺은 한국과의 투자협력을 확대

- **(서비스교역·콘텐츠 타겟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후속협상 진행, 중국내 한류 재점화 분위기에서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지적재산권**(음원, 게임, 웹툰, 방송포맷 등)을 활용해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

② **(업종)**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602.9% 증가한 5.7억 달러**, 서비스업은 **314.5%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식품**(1.3억 달러, +54,473%), **기계·장비**(1.7억 달러, +4,013%), **전기·전자**(1.9억 달러, +1,135%) 중심으로 증가세, **화공**(3백만 달러, △81.7%)은 감소

* 식료품가공포장(G사, 0.7억 달러), 반도체장비(H사, 1.0억 달러), 태양광패널(I사, 0.8억 달러) 등

- **(서비스업) 부동산**(8.0억 달러, +2,067%), **금융·보험**(5.8억 달러, +36,278%), **운수·물류업**(1.0억 달러, +7,106%)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식료품가공·포장)**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채소·과일 등을 가공·포장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신규투자

▲ **(반도체장비)**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인 한국기업이 중국 최대 로봇제조 기업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공장 자동화 장비개발을 위한 신규투자

4 일본

◈ 신고기준 **6.5%** 증가한 **8.7억 달러**(비중 5.5%), 도착기준 **12.4% 증가**한 **6.5억 달러**

* ① **정보통신**(1.5억 달러, +48.8%), ② **전기·전자**(1.3억 달러, +16.6%), ③ **비금속**(1.3억 달러, +100%)

① **(특징)**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소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였고, **소비재·정보통신기술(ICT)·금융**분야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함

- **(전·후방 연관산업 투자)** 반도체장비 및 소재 등 반도체 경기활황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대**

  * 전기·전자분야 투자 이외에 전통적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도 활발

- **(투자협력 다변화) 모바일플랫폼, 금융기술(핀테크), 정보기술(IT)보안 솔루션, 태양광설비, 스타트업 펀드** 등 **새로운 투자분야**로 **협력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태양열패널(J사, 0.5억불), IT 보안솔루션(K사, 0.25억불), 스타트업펀드(L사, 7백만불) 등

② **(업종)** 제조업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4.2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전기·전자**(1.3억 달러, +16.6%), **비금속광물제품**(1.3억 달러, +100%), **기계장비·의료정밀**(0.7억 달러, +297%)은 증가세, **화공**(0.4억 달러, △63.4%)은 감소세

- **(서비스업) 정보통신**(1.5억 달러, +48.8%), **금융·보험**(1.0억 달러, +25.2%)은 **호조세**를 보였으며, **부동산**(0.2억 달러, △87.6%)은 감소세

※ 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반도체용 고순도 흑연)** 반도체 경기 활황에 대응하여 국내 완제품 기업 납품량 증가에 대응한 반도체 소재(흑연)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증액투자

▲ **(스타트업 펀드)** 세계적인 일본의 IT그룹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펀드형 투자

▲ **(IT 보안솔루션)**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한국 유망기업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신규투자

2. 업종별 특징

❶ 제조업은 주력산업(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합작투자가 증가세,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가시화

❷ 서비스업은 정보통신(ICT), 연구개발 및 전문·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모델 제공 및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투자가 증가세

1 제조업

◈ 신고기준 **155.0% 증가한 72.1억 달러**, 도착기준 **224.8% 증가**한 **47.8억 달러**

* ① **운송용기계**(50.4억 달러, +717%), ② **전기·전자**(9.1억 달러, +152%), ③ **기계장비·의료정밀**(6.1억 달러, +160%)

① **(특징)** 생산성향상, 공정혁신 등 "4차산업혁명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국내 대기업(완제품)과 외국기업 (소재, 운영기술 등)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발

  * 전기전자(반도체), 운송용기계(車부품), 정밀기계 등 한국 주력산업 중심으로 투자 유입, 한국의 GVC 참여율은 58%로 주요 수출개도국 중 6위(UNCTAD, '18.6월)

-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자율차센서, 항공·드론,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국내기업**에 **외투가 집중됨**

  * 기반(핵심)기술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신산업분야 제조경쟁력을 확보
    - 국내기업의 4차산업혁명 기술 투자의향은 76%이나 실제 투자계획은 20%미만 (산업은행)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조달, 기술전수, 위험분산 효과 기대

② **(증가업종) 운송용기계**(6.2 → 50.4억 달러, +717%), **전기·전자**(3.6 → 9.1억 달러, +152%), **기계·장비**(2.3 → 6.1억 달러, +160%), **비금속가공제품**(1.0 → 1.5억 달러, +48.2%)

③ **(감소업종) 화공**(7.1 → 2.3억 달러, △68.4%), **금속·금속가공**(1.8 → 0.5억 달러, △69.5%)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반도체용 장비+산업용로봇)** 반도체용 장비 제조사와 중국의 1위 로봇기업이 협력하여 로봇기술을 결합한 고도화된 공장 자동화 장비개발을 위한 신규투자

▲ **(산업용가스)** 국내 화학기업에 산업용가스를 공급하는 미국기업이 산업용 수소 및 일산화탄소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증액투자

▲ **(기능성화장품)** 높은 효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춘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투자로 아시아지역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드럭스토어 입점 추진

2 서비스업

◈ 신고기준 **25.3% 증가**한 **83.7억 달러**, 도착기준 **21.8% 증가**한 **46.6억 달러**

* ① **금융·보험**(22.0억불, △16.8%) ② **부동산**(21.7억불, +69.4%), ③ **정보통신**(14.0억불, +362%)

① **(특징)**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서비스 모델"**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신산업생태계 투자"**도 활발

- **(서비스모델·플랫폼)**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Online to Offline)·**전자상거래·클라우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증가세를 보임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 세계1위의 한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출처: 퓨리서치)에 대해 투자가들은 **서비스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경영환경**으로 평가

-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교, 지자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투자 가시화

  * 예) ①**M사**(클라우드업, 대학교·지자체와 R&D혁신센터 구축), ②**N사**(콘텐츠·웹툰·게임업,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 일자리 창출 및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

- **(ICT·핀테크·콘텐츠)** 정보기술(IT)보안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식재산권 (IP)을 활용한 공동제작을 위한 투자가 특징

② **(증가업종) 정보통신**(3.0 → 14.0억 달러, +362%), **부동산**(12.8 → 21.7억 달러, +69.4%), **도소매**(5.0 → 12.2억 달러, +143.7%),

③ **(감소업종)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5.0 → 2.3억 달러, △55.2%), **금융・보험**(26.4 → 22.0억 달러, △16.8%), **숙박・음식**(9.8 → 7.5억 달러, △23.5%)

※ 서비스업 FDI 주요사례

▲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국내 최대 O2O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급성장하는 국내 배달앱시장 선점과 플랫폼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 **(콘텐츠·웹툰·웹드라마)**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웹툰·웹소설을 활용한 2차저작물(웹드라마 등) 공동제작을 위한 투자로 중국, 동남아 시장 공략이 목표

▲ **(IT보안솔루션)** OS위변조방지·앱위변조 방지 등 기술력 있는 보안솔루션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향후 블록체인 등 핀테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

3. 유형별 특징

❶ 그린필드형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62.7% 증가한 128.3억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 도착기준은 128.1% 증가한 76.5억불

❷ M&A형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M&A) 성사와 지분투자 증가로 신고기준 71.2% 증가한 29.2억불, 도착기준은 9.9% 감소한 18.1억불

1 그린필드형 투자

① **(특징)** 전·후방 연관산업과 연계한 공장 증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그린필드형 증가세를 견인

*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와 국내 내수시장 납품 및 수출을 위한 투자가 다수

② **(업종)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형 투자는 **증가**(+153%), **서비스업 분야의 그린필드형 투자도 증가**(+24.9%)

* ① 그린필드형·제조 : 56.1억불(+153%), ② 그린필드형·서비스 : 70.5억불(+24.9%)

※ 그린필드형 FDI 주요사례

▲ **(공업용 가스제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해온 일본의 정밀화학 기업이 신규 설비증설을 위한 증액투자

▲ **(바이오의약품)**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프리미엄 조명기기 전문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바이오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투자

2 인수합병(M&A)형 투자

① **(특징) 대형**(1억불이상) **인수합병(M&A) 딜**(Deal)이 **성사**되었고,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지분투자도 꾸준히 유입되어 증가세를 견인

* 글로벌 M&A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 M&A 매물 증대로 투자유입 확대

② **(업종별)** 제조업분야의 M&A형 투자는 **증가**(+162%), 서비스업 분야의 **인수합병(M&A)형 투자도 증가**세(+27.3%)

* ① M&A형·제조 : 15.9억 달러(+162%), ② M&A형·서비스 : 13.3억 달러(+27.3%)

※ 인수합병(M&A)형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요사례

▲ **(뷰티사업부 분사)**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화장품·뷰티사업부의 전략적 확대를 위한 프랑스 기업의 M&A 지분투자

▲ **(OLED 발광재료 지분투자)** OLED용 발광재료 제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Ⅲ. 향후 전망 및 대응 계획

1. 향후 전망

□ **(세계 전망)** '17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 4,3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8년에는 **소폭**(5%) **증가**할 것으로 전망 (UNCTAD, WIR 2018)

○ 이는,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다만, 국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세제개편 효과, 한-미 간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유동성 감소** 등이 투자를 위축시킬 요인으로 상존함

- 특히, 미국(CFIUS)의 중국을 겨냥한 **대한(對美) 투자 제한조치**, 각 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이 다국적기업(MNE)에게 실질적인 투자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우리 외국인 직접투자(FDI) 전망)**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157.5억 달러) 달성에 힘입어 **"4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중간** 경제협력 확대**, 수출증가세** 및 **경쟁력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유지** 등은 외투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한국경제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는 분위기와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교역·투자규모 감소 가능성**, 미국 세제개편·금리인상의 **장기적 영향**은 우리 외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상존

2. 대응 계획

□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외형확대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 중소·중견기업의 자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 그간, 신규투자에 집중되어 왔던 투자유치활동을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로 범위를 넓혀 **"외투카라반*" 등을 적극 활용**, 증액투자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 **1회** (5.21, 창원), 2회(8월, 충청권), 3회(10월, 대경권), 4회(12월, 호남권)

○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투자제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의 **투자정책**과 **외국인투자가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